

기고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가 화재의 시작이 된다

길을 걷다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은 이미 꺼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을 만나면 그 작은 불씨는 순식간에 화재로 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화재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화재 원인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최근 5년간 장흥군에서는 총 46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재산피해도 약 56억 원에 달한다. 특히 3월부터 5월까지 봄철에만 139건의 화재가 발생해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했다.

화재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화재 원인이 23%로 뒤를 잇고, 기계적 요인과 원인 미상 화재는 각각 4.5% 수준이다.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 담배꽂초 투기, 야외 취사 후 불씨 방치 등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부주의는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예방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담배꽂초를 아무 곳에 버리지 않는 것, 쓰레기 소각을 하지 않는 것, 야외 활동 후 불씨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이 화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캠핑이나 야외 취사 시에는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살피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화재는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부주의가 쌓여 만들어지는 재난이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화재 예방 홍보와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길가에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를 제대로 끄는 작은 실천이 안전한 장흥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된다.

장흥소방서장 문병운

선거철이다. 우후죽순 격으로 출사표 던지는 정치인들이 증가일로다. 이에 반해 각각의 진영들이 발표하는 견解들은 너무나 평이하다. 그야말로 속된 강경이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선거공약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현대인들은 특히 자신들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다. 그 질을 높여가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한 방법이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형성하는 것이 아닐까.

과거의 우리 사회는 기와집과 초가집 그리고 좁은 골목길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것이 근대화 바람을 타면서 골목길이 넓어지고 벽돌집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온통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국을 획일화시켜 버렸다. 아주 단조롭게. 도시에 대한 양질의 공간 디자인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결국 전국을 특색 없는 도시로 변모시켜버린 것이다. 거기에서 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도 별도로. 특징이 없단 말이다. 그것마저도 지자체장이 바뀌면 때마다 변화의 수난을 겪기도 했다. 자기과시용으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뀔 때마다 도시공간도 변해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버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 전체를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안목에 따라 조잡하게 변화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환경공해물도 부지기수로 배출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은가. 그래서 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때문에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함은 물론 그것을 토대로 시민들과 직·간접토론도 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단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찍이 미국 뉴욕은 'I♥NY', 일본 동경은 'YES! TOKYO' 등

의 캐릭터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은 물론 관광 상품화해서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러면서 외화도 많이 벌어들였다.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라. 현대화 속에서도 수백 년 또는 그 이전의 세계까지 현재화되어 공존 중인 것을 볼 수 있잖은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시를 변형시키려 할 때는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을 거쳐 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아름다운 도시들이 탄생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너무나 획일화돼 있다. 지루할 정도로 단조롭고, 거리의 광고판들도 무질서함이 도끼베를 연상케까지 한다. 그래서 바람이 조금만 세계 불어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해도 불상사까지 발생하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관광객은 물론 국내 관광객도 유치할 수 없다. 그래도 합평 나비축제, 순천 정원박람회 등은 성공작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호남의 중심부인 광주에는 어떤가. 답답하잖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앞으로 전남광주특별시장이 되려는 출마자들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창조도시를 탄생한다는 신념으로 그에 걸맞는 양질의 공간디자인 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유권자들은 이에 초점을 맞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이다. 당선 후에도 지자체장에게 강한 재책을 가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케이팝(K-Pop)을 비롯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우뚝 서듯이 우리 지역 역시 그래야 하지 않을까. 때문에 고리타분한 사고와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보자는 절대 선출해선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때문에 선진적 도시공간 디자이너 의식이 풍부한 후보에게 한 표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상사 모시는 날'이라는 구습,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오늘 점심은 누가 모시는 순번인가?"

과거 공직사회의 뿌리 깊은 관행이었던 '상사 모시는 날'은 하급자가 순번을 정해 사비로 상사의 식사를 대접하는 구습을 뜻한다. 최근 경찰은 이를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일부 잔존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는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합리함을 냉철히 직시해야 할 때이다. 조직 문화의 변화는 관리자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된다. 상사가 먼저 구내식당 이용을 권장하고, 외부 식사 시 '각자 내기(더치페이)'를 당연시 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대접받는 것을 권위로 착각하는 시대는 지났다. 진정한 리

더십은 부하 직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헤아리는 배려에서 나온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일과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고, 퇴근 후에는 가정과 개인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불필요한 격식과 눈치 보기 식 의전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

키고 후배 경찰관들에게 조직에 대한 회의감을 심어줄 뿐이다.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어느 집단보다 공정해야 한다. 내부의 낡은 관행부터 과감히 끊어낼 때 국민의 신뢰도 뒤따를 것이다. 인식의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상사 모시는 날'이 사라진 자리에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려 경찰 조직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함평경찰서 을내파출소장 경감 노병준

기자수첩

주민의 선택 "철새 정치" 배제



김준행  
기동취재본부장

'철새 정치'는 선거철마다 자신의 이념이나 정책적 소신보다는 당선 가능성이거나 개인의 이익에 따라!

정치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으로. 단순히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어떤 눈으로 정치인을 감별하고 감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민주시민의 이점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거철에만 고개를 숙이는 '철새 정치'

와 독립운동가라는 고귀한 이름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 가치와 시민의 역할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권력자'가 아닌 '해결사'를 찾는 정치인의 본질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공의 대리인입니다.

• 조직보다 민생: 거대 조직의 힘 뒤에 숨는 사람이 아니라, 골목길의 가로등 하나, 어르신들의 쉼터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현장 중심의 인물이 필요합니다.

• 약속보다 실천: 화려한 공약(空約)

을 남발하기보다, 지난 임기 동안 어떤 변화를 실천했는지 그 '계적'을 살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2. 역사적 자부심은 '이용'이 아닌 '계승'의 대상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허물을 덮거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진정한 예우: 선조의 명예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공의, 희생, 정의)를 삶의 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인격이 우선: "정치인이 되기 전 인간이 되어야"라는 말씀처럼, 도덕적 결함

이 있는 상태에서 가문의 이름만 빌려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실례이자 구민에 대한 기만입니다.

3. 투표 이후가 진짜 정치의 시작  
주민의 권리와 복지는 투표함에 표를 넣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당선자가 제대로 일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때 지켜집니다.

• 상시 감시: 선거직 의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하고 사익을 챙기지는 않는지, 시정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지 구민들이 끊임없이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비판과 지지: 잘못된 매섭게 비판하되,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 뛰는 정치인에게는 힘을 실어주는 건강한 시민 의식이 정치를 바꿉니다.

"정치인은 우리 삶을 윤곽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email, phone, and address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 space-themed background with an astronaut. Text includes '제16회 고흥 우주항공축제' and dates '2026.5.2. (토) - 5.5. (화)'. It also lists the location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and organizers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